

김지사, 민주당에 쌀값 대책·특별자치도 등 건의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현안 관련 정책 4건·법률 5건·국고 12건 협력 요청
SOC 1조 이상 확보·국립의대 설립·국가 출생수당 등 강조
김민석 최고위원 “당 브랜드 정책 전남서 선도 추진” 약속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2023년산 전국 쌀 11만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지속 하락이 우려된다”며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명 붕괴, 고령화를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

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 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천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 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9천억이 반영됐다”며 “건의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며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를 위해 전남국립의과대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부위원장은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지역

화해와 기본소득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당으로서 전남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

며 전남의 여러 지역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되고 소외된 지방 경제를 개선시켜 전남의 내일이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교통비 지원 ‘광주 G-패스’ 내년 1월 시행

市,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어린이 무임·청소년 반값 등 혜택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광주 G-패스’가 내년 1월 시행된다.

광주시는 9일 광주교통공사와 ‘광주 G-패스 시행을 위한 정산업무 등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단말기 조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광주 G-패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광주 G-패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광주 시민 모두가 맞춤형 교통비를 지원받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 정책이다.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 요금을 어린이는 무임, 청소년은 반값, 청년은 30%, 일반 성인은 20%, 어르신은 50%, 저소득층은 64%까지 할인 또는 환급받는다.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은 광주시가 자체 지원하고, 성인(19세 이상)은 K-패스와 연계해 정부 지원에 더해 광주시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등록한 뒤 사용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우선 K-패스카드를 발급 받

은 뒤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하고, 매일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일 다음 달 돌려받는다.

K-패스를 발급·등록한 광주 시민은 올해는 정부의 K-패스 지원율에 따른 혜택을 받고 내년부터 광주 G-패스가 시행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광주시가 지원하는 추가 혜택을 받는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지원율은 19-34세 청년 30%, 35세 이상 일반 성인 20%, 저소득층 53%다.

내년 시행 예정인 광주 G-패스 지원율은 19-34세 청년 30%, 40-64세 일반 성인 20%, 65세 이상 어르신 50%, 저소득층 64%다.

광주 G-패스는 청년 연령을 39세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30%와 11%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과 사회적약자에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광주 G-패스는 광주 시민이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며 “G-패스를 시작으로 광주를 승용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선경 기자

민주 광주시당, 지명직 상무위원 5명 인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시장 구성을 위한 주요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무위원회에는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서구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를 비롯해 고문단, 부위원장, 대변인 등을 임명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의결한 당규에 따른 지명직 상무위원은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 강성근 현 동남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상중 현 서구를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김태영 현 관산구갑 지역위원회 사

무국장, 김영선 전 서구의회의원 등 5명이다.

상임고문은 박광태·이용섭 전 광주시장, 박해자·이형석·송갑석·이병훈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다. 부위원장단에는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을 포함해 27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이귀순 현 광주시의원과 성현출 전 광주 남구문화원장이 선임됐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은 광주 발전과 시민·당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라며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유능한 민주당 광주시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선경 기자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2024. 8. 12 ~ 2024. 9. 30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최대 100만원 할인

REAL PRO MAN1



1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타사 안마의자를 포함하여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 MAN1 최대 100만원,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가로 구매가능

2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초경량 무선청소기 WDD91증정 *재고소진시까지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